



“빠레이드”의 80대 20의 법칙

오재호/한국부부문화연구원장, KBS-2R “밤을 잊은 그대에게” MC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혼현장에서는 태연하게 연출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가령 내가 “아주머니! 이혼하겠다는 이유는 뭘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뜸 한숨과 함께 시작합니다. 고향은 어딘데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며,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학교성적은 어떻고,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등등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터는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한 연설(?)을 늘어놓습니다. 은근히 화가 치밀다가도 다그칩니다. “아주머니!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못살겠다는 거죠? 미안하지만 이 정도 이유로써는 이혼 못합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잔소리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빠레이드”의 80대 20의 법칙이 꿈틀거리리는 현상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경제학자 “빠레이드”의 학설입니다. <능률적이지 못한 80%쪽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20%의 능률이 100%로 능률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를 위해서 80%가 필요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백화점 하루 매상을 100%로 잡았을 때 매상의 80%는 20%의 매상고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전투에서 20%의 정예병사가 80%의 전공을 세우고 20%의 전공은 나머지 80%의 졸병들이 세운다는 이론입니다. 정말로 기막힌 이론입니다. 이혼서류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유는 겨우 20%정

도로 쓰고 들어나마나한 사유로 나머지 80%를 채웁니다. 20%의 사유를 위해서 80%의 사연을 늘어놓습니다. 마침내 이혼서류를 읽다말고 짜증부터 납니다.

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읽기도 싫어지고 이혼소장을 제출한 그 사람이 알미워집니다. 이혼재판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들어야 할 이유는 겨우 20%정도 내세웁니다. 그 대신 나머지 80%

의 말은 화가날 정도로 지루한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손해는 어느 쪽에서 볼까요? 물론 사람들은 말은 남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혼현장에서면 사정은 많이 달라집니다. 아주 특별한 사

람이 아니고서는 “빠레이드”의 80대 20의 법칙을 벗어날 재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많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영커귀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풀이면 영커귀는 되지 말라>는 속담도 있지만 가축들도 억센 영커귀풀은 먹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영커귀풀처럼 이기적이고, 자기 방어적이며, 갈등과 반복을 거듭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기 본위로만 살아가려는 현대인은 “빠레이드”의 80대 20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커귀를 날카로운 독침이 돌아있다고 해서 천침초(于針草)라고 했습니다. 평상시 우리는 스스로 독침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협도 모르고, 인내심도 없고, 욕심스럽고, 심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PPFK

